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uronav linked to VLCC order at South Korea's Hyundai Samho Heavy

한국조선해양이 Euronav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에는 옵션분 1척이 포함돼 총 계약금액은 2.78억달러이며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 탑재형이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하여 2022년 4분기부터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US envoy John Kerry to back IMO decarbonisation driv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문제 수석 특사인 존 케리는 해운을 탈탄소화하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움직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IMO관련 외신들은 존 케리가 4월 20일 해양과 기후관련 행사에서 전달하는 기조 연설에서 국제 해운 배출 규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알릴 예정이라고 보도함. (TradeWinds)

LNG import spike: Key Chinese province aims for huge hike in gas usag

중국 광둥성은 정부의 탄소 배출 감소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 가스 소비를 늘리고 가스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됨. 중국 광둥성은 2025년까지 가스 소비량을 연간 480~520억평방미터로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중국은 2060년까지 Net-zero emissions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짐. (Upstream)

Shell takes Seadrill rig for fresh drilling campaign offshore Brazil

네덜란드의 슈퍼 메이저 Shell사가 Seadrill사의 드릴십에 대한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Shell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 석유 회사 중 하나였지만 Gato do Mato 탐사선으로 성과를 낸 이후 10년 이상 pre-salt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도됨. 하반기부터 신규 드릴링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형 선주사업 시범 사업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형 선주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선박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 후 해운사에 BBC(Bare Boat Charter, 나용선)형태로 임대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 사업을 통해 해운사는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리스로로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지게차 업체로부터 엔진 1만5천대 수주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지게차 제조회사인 린데차이나로부터 엔진 1만5천대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소형 디젤·LPG용 G2엔진 1만5천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됐다고 보도됨. 엔진은 린데차이나에서 생산하는 유럽과 북미 수출용 3.5t 이하 지게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